

## 總 括 討 議

方 基中

笠原芳光

南 富鎮

並木真人

橋谷 弘

方 基中

方: 안녕하세요. 延世大學의 方基中입니다. 이렇게 意味가 크고 훌륭한 學術會議에 招請해 주신 것을 대단히 感謝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직 日本語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發表 要旨文을 통해 發表 內容을 理解하였음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日本統治下の 朝鮮’에 대한 여러 가지 重要的 研究上的 問題와 主題들이 發表되었습니다만, 저는 주로 基調講演을 하신 尹健次 선생님과 鄭在貞 선생님의 發表를 中心으로 日帝時期 韓國史와 관련된 研究 方法論의 問題와 課題에 대해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尹선생님과 鄭선생님이 發表하신 內容에 대해 많은 點에 同意하고 있습니다. 基本的으로 생각을 같이하는 點이 많다고 하겠는데, 그러면서도 몇 가지 좀더 強調되어야 하거나 분명히 해야 할 點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尹선생님께서서는 最近 歷史研究의 새로운 問題提起를 하고 있는 脫近代論·脫國家論·脫民族論 등이 韓國의 歷史學界에서 커다란 이슈로 浮上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文學이나 社會科學을 중심으로 一部 知識人이나 學者들 간에 그러한 論議가 활발한 것은 事實이지만, 그러나 歷史學界, 특히 韓國史 研究와 관련해서 볼 때 脫近代論·脫國家論·脫民族論 등은 아직 評論的인 觀點·

視角의 提言에 불과한 水準이라고 생각합니다. 主張하는 批判的 問題意識에는 傾聽할 點이 많이 있지만, 그 方法論에 立脚한 具體的인 研究成果를 가지고 論議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點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指摘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談論 自體가 歷史像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尹선생님께서서는 談話라고 표현하셨는데 韓國에서는 談論이란 用語를 사용합니다만, 談論은 方法論에 不過한 것이고, 그것이 說得力을 가지려면 日帝時期 韓國의 歷史的 現實에 부합하는 具體的인 歷史像을 提示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들 方法論은 ‘巨大談論’과 ‘작은 談論’을 相互 對立的으로 看做하는 傾向이 있는데, 韓國의 學界 狀況이나 研究 水準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巨大談論’과 ‘작은 談論’을 對立的으로 파악하기보다는 相互 補完的으로 接近할 必要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韓國 近代의 歷史像, 植民地 時期의 歷史像 認識의 核心 關鍵은 결국 國家問題·民族問題·階級問題의 解明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소홀해질 수 있는 多樣한 歷史的 側面을 浮彫的으로 浮刻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시 相互 有機的인 聯關性 속에서 構成的으로 把握해야 한다는 意味입니다.

요컨대 現在 韓國의 研究 狀況에서 深刻한 問題의 所在은 ‘巨大談論’ 中心的이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巨大談論’에 立脚하여 體系的이고 重厚한 歷史像을 提示한 研究成果가 크게 不足하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點이 아직도 韓國의 近代性, 植民地 近代性的인 實體를 명확히 하지 못한 채 이에 대한 論議가 紛紛한 理由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個人的으로는 비록 낡은 方法으로 보일지라도 國家와 民族, 그리고 階級 등의 問題를 根幹으로 하면서도 日帝時期 다양한 歷史的 側面 속에 나타난 ‘植民地 近代性’의 實體와 本質을 解放 以後의 韓國現代史의 展開와도 관련하여 體系的으로 보여줄 수 있는 重厚한 研究成果가 많이 나오기를 期待하고 있습니다.

다음 鄭선생님이 다른 植民地近代化論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所謂 植民地近代化論에 입각한 研究는 現在 상당한 研究成果를 生産하였고, 또 이를 바탕으로 獨自的인 韓國 近代·現代의 歷史像을 提示하고 있다는 점에서 脫近代論과는 論議의 次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鄭선생님께서 워낙 精鑿으신 분이라 주로 研究方法上의 問題를 중심으로 穩健하게 植民地近代化論을 批判하셨는데, 저는 우선 이 系統의 研究가 研究方法論의 次元을 넘어서서 이미 자기 나름의 歷史認識 體系와 이데올로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더 분명하게 規定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系統의 學者들 가운데 日本人의 경우에는 저도 그 內面까지는 잘 알지 못해 여러분의 意見을 듣고 싶습니다만, 적어도 韓國人 學者에 限定하여 말씀드리면, 이들이 純經濟論理를 主張하면서 構築한 日帝時期 韓國의 歷史像은 이들 스스로 立場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바와 같이 資本主義 價值觀·經濟思想에 立脚해 있습니다. 때로 마르크스주의적 言辭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歷史認識 體系는 歷史學派 經濟史學이나 資本主義 近代經濟學의 思想傳統, 植民主義·近代主義 이데올로기와 脈絡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體制理念·歷史認識의 必然的인 歸結입니다만, 이들은 또한 韓國의 現實 民族問題·分斷問題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南韓 中心的인 立場에서 吸收統一論을 堅持하고 있습니다. 그 認識 方式은 南韓의 傳統的인 保守的 反共民族主義와는 다른 것입니다만, 이들은 韓國現代史의 기본 흐름인 南北分斷史의 客觀的 實體를 外面하고 北韓史를 완전히 視野에서 排除시키는 反共·反北의 立場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植民地時期 歷史認識과 관련하여 當然한 認識의 歸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研究方法 問題와 관련해서 指摘하고 싶은 것은, 이들은 스스로 純經濟論理에 입각한 經濟的 側面에 대한 實證的 分析을 強調하면서도 그 特定 側面을 浮彫的으로 浮刻시키거나 이를 一般 歷史像 全體의 認識 問題로 飛躍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端的인 例가 이른바 ‘朝鮮人の 能動的 모습’에 대한 狹隘한 認

識입니다. 鄭선생님께서서는 ‘朝鮮人の 能動的 모습의 發見’이 植  
 民地近代化論이 學界에 刺戟을 준 第一의 成果로 評價하셨습니다  
 만, 이들이 發見한 朝鮮人の 能動的인 모습은 주로 朝鮮人 資本家  
 를 對象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日帝時期 ‘能動的인 朝鮮  
 人の 모습’, 곧 朝鮮人の 能動性은 다양하게 存在했다고 생각합  
 니다. 植民地近代化論에서는 日帝의 植民支配에 抵抗한 朝鮮人の  
 모습을 能動的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抵抗  
 的 能動性 역시 能動的인 朝鮮人の 모습입니다. 또 資本家的 能動  
 性 外에도 植民地 조건의 近代的, 資本主義的 社會體制 속에서 積  
 極的으로 日常的인 삶을 營爲하는 農民層을 비롯한 여러 계층의  
 民衆, 知識人·藝術家·技術者와 같은 專門家 集團 등, 실로 다양  
 한 類型의 朝鮮人の 能動性이 存在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요컨  
 대 日帝時期 韓國의 歷史像은 多樣하게 存在한 이러한 能動性의  
 實體와 相互關係, 그 能動性의 意識構造와 思想 등을 日帝의 朝鮮  
 支配와 연관해서 살필 때 體系的으로 理解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指摘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特別히 強調하고 싶은 것은  
 思想史 研究의 重要性입니다. 제 자신 專攻 領域이 思想史이기도  
 합니다만, 그간 學界에서는 民族運動論·革命論을 檢討하는 것을  
 思想史 研究로 생각하는 傾向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학  
 계에서 思想史 研究가 不振하고, 또 現在 民族運動史 研究도 限界  
 에 부닥치게 된 주요한 原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思想史 研  
 究의 主要 課題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多樣하게 存在한 여러  
 類型의 能動的인 朝鮮人の 內面世界와 認識構造를 水野直樹 先生  
 님께서 言及하신 支配政策 思想 등과 관련하여 檢討하는 데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作業과 관련하여는 당연히 당시 日本과  
 朝鮮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世界思潮의 흐름을 포함하여 日本의  
 思想 動向, 日帝의 支配 이데올로기와 侵略 이데올로기 등이 相互  
 有機的으로 檢討될 必要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時期 韓國  
 史 研究의 進展을 위해서는 특히 東아시아를 中心으로 하는 比較  
 史的 研究도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韓國의 歷史學界는

比較史 研究의 經驗이 극히 不足하기 때문에 國際的 協力研究・共同研究의 増大가 크게 要請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簡單하나마 제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 笠原芳光

笠原：笠原芳光と申します。京都精華大学に長年勤めて定年退職いたしました。専攻は宗教思想史です。何故私がここに呼ばれたかという、金先生のお話にあったかと思うんですけども、「『日本的キリスト教』批判」という論文を30年ほど前、同志社大学人文科学研究所の『キリスト教社会問題研究』22号に書いたんですが、それを読まれて、自分の話と関連があるので、出て来いと言われたように思います。それです、日本のキリスト教とは何かということですが、「日本の伝統的な精神、思想、宗教とキリスト教との接触をはかる思想の総称である」という風に思います。広義のものと、狭義のものがありまして、日本ということを目覚めたキリスト教ということ、内村鑑三、或いは矢内原忠雄が言っております。「外国の仲人を経ずして、直に神より受けた基督教」という言葉を内村鑑三は大正9年に言っています。「日本的基督教」という題の文章です。或いは、「西洋の宣教師から支配、干渉を受けないで、自由、独立に伝道し、研究するキリスト教」という意味のことを矢内原忠雄は昭和9年に「基督教的日本」という文章で語っています。これらは広い意味の日本的キリスト教です。狭い意味の日本的キリスト教、これが問題なんです、それは、日本の伝統的な思想とキリスト教との接合、或いは混淆をはかる、そういうキリスト教の考え方です。この代表的な人物が、海老名弾正であります。この人は、例えば、神道、儒教、仏教、耶蘇教（キリスト教）の神は、異名同体であると、名前は異なっているけれども一つなんだということ、既に明治30年に「日本宗教の趨勢」において語っております。また、その弟子である渡瀬常吉という人は、天御中主（アメノミナカヌシ）という神道の神、これは最高神的な存在なんです。そ